■ 전국소년체전 26일 개막…광주·전남 전력 분석

광주 수영·육상 선전 기대…“3위 수성”

전남 구기종목 전력 향상…10위 목표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대회에는 육상, 태권도, 펜싱, 수영등 31개 종목에 1만6천571명(선수 1만1천802명, 임원 4천769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광주는 전통강세 종목인 체조와 육상, 수영등의 선전을 기대하며 지난해와 같은 3위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남은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고영효·김지현 수영 2관왕 예상

전남 31개 종목, 선수단 1,140명 출전

▲광주= 카누와 사이클을 제외한 29개 종목에 1,023명(선수 730명, 임원 293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지난해 3위로 도약, 올해도 3위를 수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광주는 지난해 3위로 도약, 각 시·도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지만 효자종목인 수영과 체조, 육상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온다면 3위 수성이 가능하다.

육상에서 체육중 김민정이 여중 400m에서 금메달이 유력하고, 봉주초등 장승진도 남초 800m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효자종목인 수영에서 전남중 고영효가 자유형 400·800m에서이변이 없는 한 우승이 확실시 되고, 체육중의 김지현도 여중 배영 100·200m에서 역시 2관왕을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태권도에서 천곡중 채혜선이 최고기량을 뽐내고 있어 금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남초 양궁, 역도, 유도등 투기종목에서도 금메달 선전이 기대된다.

이와함께 송광중 하키, 광주남초 축구, 수창초와 무등중 야구, 정구 전종목에서 금메달이 예상된다.

▲전남=전남은 31개 전종목에 1천140명(선수 810명, 임원 330명)이 참가한다. 종합 10위에 올라 지난해 보다 2계단 상승을 목표로 세웠다.

전남은 순천중앙초등 축구와 정구 전남선발등 단체종목과 전체적인 전력이 향상돼 지난해 보다 2계단 오른 10위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육상에서는 유은선(보성득량남초) 높이뛰기, 윤수용(나주중) 5천m, 황현태(전남체중) 멀리뛰기 등 3개의 금메달이 유력하며, 사이클은 남승우(금성중) 500m 독주, 다시중 단체스프린터에서 금을 기대하고 있다.

유도에선 이진성(무선중)과 연들이(전남체중)가 금메달이 확실시되며 양궁도 한경희(구례여중) 30m와 , 단체종합에서 역시 금메달이 유력하다.

태권도 정철영(여수중)과 김둘이(전남체중)도 금메달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체종목에서는 순천중앙초등의 축구와 정구 전남선발이 금메달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이영표 없는 한국팀이라면…”

“평가전 앞둔 네덜란드 경기부담 크게 덜었다”

네덜란드 스포츠지 보도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토트넘)가 없는 한국대표팀이라면…’

다음 달 2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베어벡호와 친선경기를 갖는 ‘오렌지군단’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이 박지성, 이영표의 결장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네덜란드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위크’가 23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핌 베어벡 감독이 네덜란드전 예비 명단 32명을 발표했다고 전한 뒤 15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이동국(미들즈브러)을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

스포츠 위크는 안정환이 베어벡호에 포함되지 못해 한국을 수월하게 상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축구연맹(KNVB)은 한국과 치를 이번 평가전에 골키퍼 에드윈 판데르사르(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측면 공격수 아르연 로번(첼시)이 각각 개인 사정과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4일(목)

▲메이저리그〈보스턴-뉴욕Y〉(07 : 55·Xports), 〈밀워키-LA다저스〉(11 : 00·X-ports)

▲하우젠컵대회〈광주 상무-대전 시티즌〉(10 : 45·MBC)

▲프로야구〈삼성-SK〉(13 : 50·SBS스포츠), 〈KIA-롯데〉(14 : 00·MBC ESPN), 〈LG-두산〉(14 : 10·KBSN Sports·KBS1), 〈현대-한화〉(18 : 00·KBSN Sports)

▲최요삼 세계타이틀 전초전〈최요삼-오니시켄이치〉(18 : 50·SBS스포츠)

25일(금)

▲PGA 투어 크라운플라자 인비테이셔널 1R(04 : 00·SBS스포츠)

“74년 알리전 패배는 누군가 탄 약물 때문”

ESPN “조지 포먼 의혹 제기”

사업가로 변신한 프로복싱 전 헤비급 세계챔피언 조지 포먼(58·미국)이 1974년 무하마드 알리(65·미국)와 대결을 앞두고 누군가 약물을 탄 물을 마셨다는 의혹을 10여년 만에 다시 제기했다고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23일 보도했다.

포먼은 최근에 출간된 ‘내 링 코너의 신’이라는 제목의 새 자서전에서 당시 경기를 앞두고 마신 물에서 약물 맛을 느꼈다며 알리에게 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74년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열린 타이틀 3차 방어전에서 알리에게 예상외의 8회 KO 패를 당한 뒤 평생 ‘알리 콤플렉스’에 시달려온 포먼이 ‘약물 주입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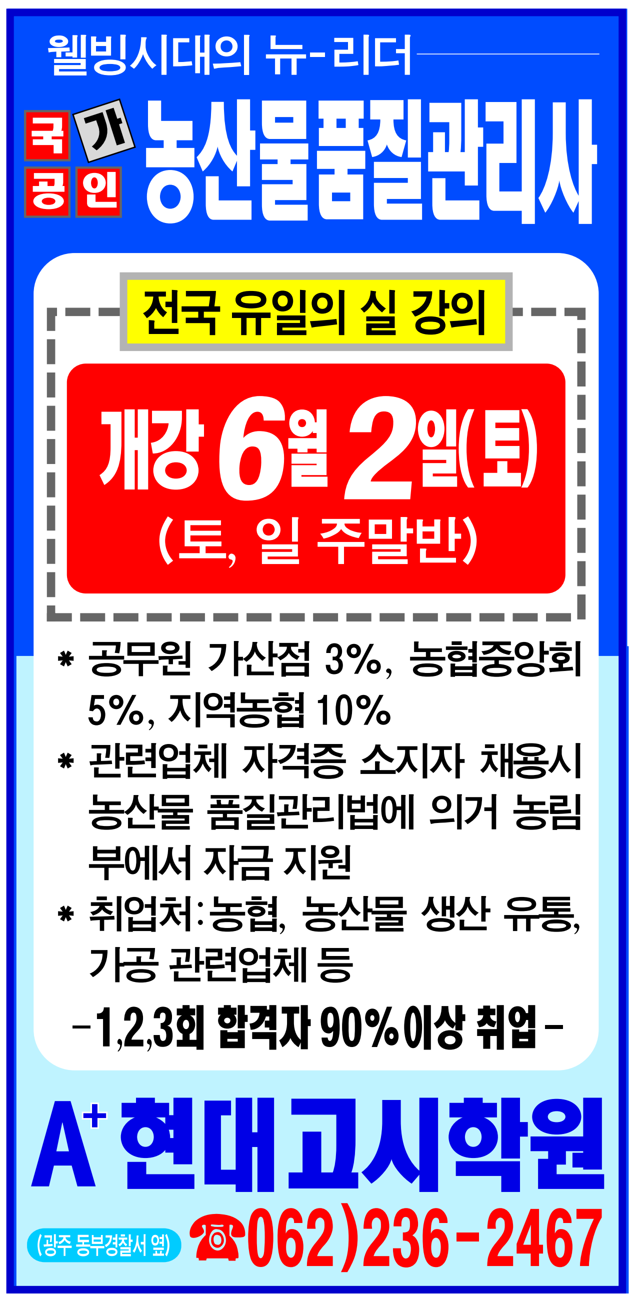
은퇴를 번복하고 링으로 복귀해 1994년 45세 나이로 마이클 무어러(40·미국)를 누르고 최고령 헤비급 세계챔피언이 된 포먼은 다음해인 1995년 자서전을 펴내고 자신의 트레이너 딕 새들러가 약물을 탔다고 주장했다.

1974년 경기 직전 새들러에게 주심 매수비용 2만5천 달러를 줬지만 새들러가 ‘배달사고’를 낸 뒤 자신이 마실 물에 약물을 탔다는 것. 당시 새들러는 “평생 들어본 거짓말 중에 가장 악랄한 거짓말”이라며 포먼을 “더러운 악당”이라고 맹비난했다.

2005년 자신의 이름을 딴 ‘조지 포먼 엔터프라이스’를 설립하는가 하면 최근 자동차 경주팀 주주가 되는 등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포먼이 이번에 새 자서전 판촉을 위해 ‘약물 주입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알리 콤플렉스’가 뿌리깊게 박혀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셈이다.

의외의 패배를 당한 챔피언이 ‘약물 주입 의혹’을 제기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있었다.

세계복싱협회(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유제두(59)는 1976년 2월 일본 도전자 와지마 고이치와 재대결에서 예상 외로 15회 KO 패를 당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낸 나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정보부 요원이 경기 전에 먹은 딸기 속에 약물을 넣는 바람에 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샌안토니오 2연승 질주

23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2006-2007 미국프로농구 서부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2차전 유타 재즈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경기에서 샌안토니오 토니 파커(오른쪽)의 패스를 유타의 안드레이 키릴렌코가 막고 있다. 이 경기에서 샌안토니오가 105-96으로 이겨 2연승을 거두며 2년만에 챔피언 결정전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AFP=연합뉴스